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유럽은 더 이상 '귀족스러운' 유럽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패전국의 수많은 부호들, 이민자들, 망명객들, 정치범들은 망가진 유럽을 떠나 이 조용하고 한적한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들이 그러했듯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하 중아공)은 기득권층인 소수의 백인과 피착취층인 대다수의 아프리카계 흑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프리카 계몽당은 몇십년째 정권에 눌러앉아 수많은 흑인들을 착취하고 또 억압했습니다. 저항은 무참히 분쇄되었고, 셀수도 없는 흑인 하류층들은 하루하루 비참한 가난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몽당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름뿐이라지만 중아공의 제 1 야당, 사회흑무당을 멋대로 해체시키고 흑무주의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숨죽이고 있던 흑무주의자들의 시위가 연달아 이어졌고, 당국은 이를 무자비한 유혈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아공 대통령 스티븐 훔바훔바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면서, 정부는 계엄령을 내렸고, 브라질의 지원을 등에 업은 흑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자유 흑무전선'이 출범하며 정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하나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타협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는 흑댄스"